

대학 주관 해외 어학연수의 장점 및 효과

이 선 재

숙명여대 의류학과 교수, 학생처장



1

예년에 없던 불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처음에는 거품이 빠지는 과정 정도로만 생각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예견되었는데 최근 환율과 증시의 파동, 외국 투자자들의 철수 등등을 보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서늘하게 다가온다. 단순한 불경기의 차원이 아닌 불황이 올 것이라는 공감은 일찍이 형성되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재벌기업들의 부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오랫동안 세웠던 계획과 희망을 상실하는 고통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대학가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예년 같으면 각종 공채와 행사의 플래카드 물결이 캠퍼스를 가득 메울 터인데 올해는 확실히 채용공고가 줄었다. 그러나 취업하고자 하는 인구는 매년 늘고 있으니 해마다 취업 경쟁률은 높아져 가는 것이 당연한데, 올해는 채용규모가 줄었으니 경쟁률이 어떨까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방법도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는 것이어서 노래방이나 맥주집에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등산이나 극기훈련 코스를 넣기도 하며, 대학 생활중의 다양한 활동경력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취업하려면 해외 배낭여행과 어학연수는 기본이며 자격증은

필수란 말이 나온다. 많은 학생들이 재학중 어학연수에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국제적인 공용어인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기본 필수일 것이다. 언어를 구사하고 해독하는 능력은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실제로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고 적응력이 빠르며 다른 업무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그래서 새사람을 뽑을 때 어학능력이 중요한 선발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인식과 필요성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은 재학중에 어학연수의 기회를 가지려 한다. 기술 습득과 여행은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한다. 그 경험을 활용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어학연수와 배낭여행은 취직의 필수조건이기 전에 젊은이의 특권이자 일종의 관문인 것이다. 필자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외국 유학은 무척 드문 사례였고 더구나 어학만을 연수하러 외국에 가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전공공부를 목적으로 유학하면서 그 과정에서 외국어를 습득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조류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고 최신 정보도 현지와 거의 같은 시간에 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굳이 현지에 가지 않아도 정보는 얻을 수 있으나, 어학능력은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떠나는데 그 방법도 다양하다. 많은 학생들이 사설 어학원이나 국내 분교를 통해 현지 대학의 어학교육 과정을

밟는다. 많은 좋은 학교에서 한국에 분교를 설치하고 학생들 유치에 열을 내고 있다. 이 방법이 대중적이긴 하나, 가끔씩 제시된 프로그램과 실제 연수내용이 다르고 현지에 가보면 한국에서 듣던 것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지 않은 모양이다. 알선 업체가 공신력이 있는지도 살펴야 하고 이것 저것 신경 쓸 것이 많다. 또한 연수비용도 만만치 않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볼 때, 어학연수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추세이고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사설기관도 많이 생겼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없지 않으니 공신력 있는 학교기관에서 이를 직접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재직중인 숙명여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학교가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의 장점 및 효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숙명여대에서는 일찍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집중적인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2006년의 창학 100주년을 앞두고 '95년에 선포한 '제2창학'은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만들기에 주력하자는 숙명인의 의지 표명이다. 세계 속의 한국여성을 만들기 위한 본교 교육목표의 개념은 세계화·정보화·개방화·민족화이다. 이 중 세계화를 위한 지원 체제는 학생·직원에 대한 해외 연수,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 확대, 학점교환제 실시,

외국인 교수 확대 등이다. 제2창학이 선포된 이래 4만5천 명의 숙대 동문들의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과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이의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 후배들이 21세기 미래사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조성된 제2창학 장학금이 후배들의 어학연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2창학 장학생(어학연수생)은 성적에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1996년 본교 창학 90주년을 맞이하여 장학생 66명과 교직원 7명을 선발하여 본교와 자매교인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아메리카 대학교에 38명,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요크 대학교에 35명을 파견하였다. 연수생들은 연수 시작 두 달 전부터 교내 어학실습실에서 어학연수를 위한 사전 어학교육 과정을 밟았고, 학생처에서는 해외여행 및 어학연수 기간중의 생활예절과 학습자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학교에서는 장학금으로 이들의 수업료 및 기숙사 체류비 일체를 지급했으며(항공료는 본인 부담), 지도교수 및 직원을 동행하게 하여 안전과 아울러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아메리카 대학은 워싱턴에 소재하여 주변에 있는 국무성, 국방성, 대법원, 워싱턴포스트사 등을 방문할 수 있었고, 스미소니언 박물관, 케네디 센터, 의회도서관 등도 견학하였다. 어학교육을 받으면서 문화적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으며, 기숙사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뉴욕에 있는 한국대사관, 유엔 본부, 한국문화원 등도 방문하였다. 현지에서 거주하는 동문들의 초청으로 소풍도 갔고 한인방

송에 출연하여 자랑스러운 모교와 조국에 대하여 얘기하기도 했다.

캐나다 연수팀도 오타와의 외무통상성, 의회, 한국대사관, 정보고속도로 정책수행 집행기관 등을 방문하고 문명박물관, 국립박물관 등도 견학하였다. 토론토에서는 셰익스피어 연극을 주로 공연하는 스트레드포드나 버나드 쇼우의 작품을 공연하는 쇼우 페스티벌 등의 연극제 참가, 왕립 온타리오 박물관 방문 등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겼다.

연수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기대 이상의 다양한 문화적 체험으로 체류하는 동안 더 많은 즐거움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현지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동문들의 모습을 보고 세계화의 현장을 실감했고, 바쁜 가운데서도 고국에서 온 후배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베풀어 주는 선배들을 볼 때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동문으로서의 든든한 유대감을 느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어학연수는 기본이고, 부수적으로 세계화의 현장을 체험하고 자신감을 얻은 것뿐, 모교에 대한 긍지와 소속감을 느낀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수확이었다고 한다. 외국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듯이 학교를 떠나서 학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확인한 듯하니 이 또한 중요한 소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연수를 다녀온 후 가진 평가회 자리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시야가 넓어졌으며 현지에서의 문화적 체험이 어학을 학습하는 데 크게 도움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책이나 사진으로만 보던 국제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봄으로써 세계화를 실감하고, 뉴스의 현장에서 전 세계적인 삶을 사는 것을 직접 보니까 왜 외국어를

잘 해야 하는지를 느끼겠다고 하여, 자신들은 반드시 세계화의 주역이 되어 21세기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였다. 1997년 여름에도 아메리카 대학에 학생 46명과 교직원 4명, 요크 대학에 학생 28명과 교직원 2명 등 총 80명이 제2차 장학 해외 어학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교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고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이와 같이 본교가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실질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다.

3

요즘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중 일부의 탈선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유학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어학연수가 많은 시간과 경비를 요하므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과 다녀오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것이 일부 연수생들의 특권의식으로 발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현저 어학연수 자체의 장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어학연수를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연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기관이 추진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대학생들은 과거와 달리 '5년 재학'

이 드물지 않고 더구나 올해처럼 취업난이 가중된 때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며 취업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의 필수 코스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어학연수를 어떻게 대학교육 안으로 끌어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욱 알찬 내용의 연수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대학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숙명여대는 '98년 여름방학중 해외 어학연수 장학생 파견을 위하여 '97년 11월 현재 미국 아메리카 대학과 캐나다 요크 대학에 갈 90명의 장학생 모집 공고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20개국의 28개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점차 범위를 넓혀 다른 나라에 있는 자매 대학교에도 해외 어학연수 장학생 파견을 권장하려고 한다. 이것은 곧 숙명여대의 제2차 장학이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이선재 /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숙명여대 의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현재 학생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의류학개론』, 『패션머천다이징』,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패션』, 『인프라의상』, 『현대노년학』, 『유교사상과 의례복』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여자저고리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의류상품의 신문광고 효용에 관한 연구", "신세대 여성의 진바지 착용태도와 정보원 활용에 관한 연구" 외 다수를 발표했다.